



## 역사의 전기 이론 중요사건 한데 모아 관련화보 수록한 입체적 구성 눈길끌어

— 「세계사 100장면」 펴낸 박은봉씨

이 책 그 사람

이제 웬만한 분야의 전문지식은 서점에 적잖이 깔려 있는 ‘쉽게 풀어쓴’ 입문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게 됐다. 만화까지 동원된 이 ‘지식의 대중화’ 현상의 족보를 따져보자면, 가까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쏟아지기 시작한 일련의 사회과학 개론서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책들이 이전의 개론서들과 변별되는 점은 그 대상층을 전공자나 ‘운동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대중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철학과 역사서에 집중됐던 경향에서 순수과학, 컴퓨터, 경제분야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출판흐름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최근 출간된 「세계사 100장면」(가람기획)도 이즈음 눈에 띄는 대중용 역사서로, 특히 독특한 내용구성과 편집으로 주목할 만하다. 최초의 인간으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출현에서 소련의 붕괴에 이르는 인류 역사 250만년을 중요 사건 100가지로 요약해 재구성한 이 책은 한권의 책을 통해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교육서로도 기대를 모은다.

번역작업과 함께 「한국근현대사사전」의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는 박은봉씨(33)는 이 책이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다 잊어버린 평범한 생활인들, 또는 암기 위주의 역사공부에 정떨어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말하면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史實들을 골라 가능한 한 교과서의 편제를 따랐다고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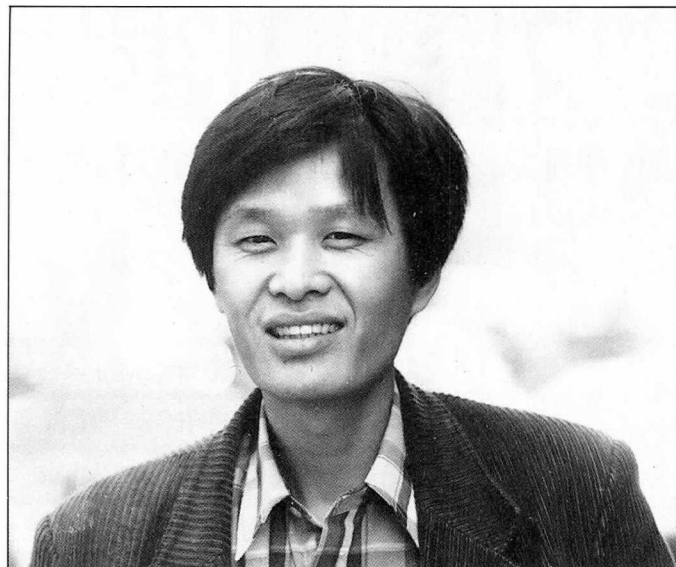
각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살리고 학술용어를 배제한 이야기식 서술방식을 택한 점도 독자들의 역사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데 한 몫을 할 듯하다.

그러나 독자를 위한 이러한 배려의 이면에는 저자 나름의 사관이 자리한다. 왕이나 영웅 위주의 ‘소수의 역사’가 아닌 민중을 중심으로 이뤄진 ‘다수의 역사’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이 그것인데, 근·현대사의 비중이 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 4대 문명의 성립, 십자군전쟁, 몽고의 통일과 중앙아시아 원정, 독일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 프랑스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1·2차 세계대전, 중동전쟁, 페레스트로이카, 독일통일, 걸프전, 에이즈문제 등 ‘세계사의 전기’를 이룬 대사전’ 중에는 ‘훈민정음’ 반포, 동학농민전쟁, 6·25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채롭다.

사학을 전공한 덕을 톡톡히 본 셈이지만 교육문제에 눈을 뜬 계기가 된 졸업후의 사회활동이 책출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그는, 편향된 연구시각을 바로잡는 일이 젊은 사학자들의 몫이라면 그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해주는 일은 자신의 몫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제목이 제목만큼 각 장에 알맞은 자료사진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막상 책을 내놓고 보니 “선정된 사건들이 과연 당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그동안 관여했던 여성단체와 노동문제상담소일은 일단 접어두고, 앞으로 계속 집필에만 몰두할 계인인 그는 결혼과 출산, 육아체험으로 더욱 절실했던 여성문제에 관한 책도 쓰고 싶다고 한다.

— 정소연 기자



## 맞벌이가정의 아빠가 쓴 체험적 육아기록 만화 곁들여 아이키우는 남성의 모습 그려

— 「반쪽이의 육아일기」 펴낸 최정현씨

이 책 그 사람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가사노동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새삼스런 이야기도 못되지만 ‘육아’의 문제만큼은

아직도 많은 부분 어머니인 ‘여성’의 몫으로 할당돼 있는 게 현실인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일찌감치 실천에 옮겼던 ‘개종’한 남성들은 스스로가 참여했던 육아의 체험들을 책으로 선보여 신선한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화가 최정현(32)씨가 딸의 두번째 생일(5월7일) 기념으로 최근 펴낸 「반쪽이의 육아일기」(여성신문사)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유감없이 활용, ‘만화’로 그린 육아일기장이란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지난 9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신문’에 매주 1회씩 연재해왔던 만화 87편을 한데 모아놓은 이 책에는 최씨가 부인 변재란(영화평론가)씨와의 사이에 난 딸 최하예린(‘하’늘이 내 ‘린’ ‘예’쁜 딸을 줄인 우리말임)의 육아과정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어려움, 아버지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용기가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고향에서 조카들이 집안전체를 무법천지 이수라장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적어도 작품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아기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다보니 절실했던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사랑스러워지더군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면

좋아한다더니...” 이해인지 편자인지 모를 말을 형수들로부터 들으면서도 아이 키우는 재미에 함박 빠졌던 그는 모성애나 부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애와의 접촉정도에 따라 생겨나며, 애정은 그에 쏟았던 자신의 정성에 비례한다고 믿게 되었다.

최씨가 만화로 육아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신문의 창간때부터 삽화와 만평을 그려왔던 그에게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맞벌이부부의 육아현실의 고충을 만화로 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받았던 것. 연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과 불평이 쏟아졌다. “애야 낳은 사람이 키워야지” 하는 점잖은 충고형에서 아내의 담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임을 밝혀달라”는 주문형, 그리고 “어물전 망신은 골똘기가 다 시킨다더니 남자망신 혼자 다 시킨다”는 위협형에 이르기까지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우리사회에서 남자가 애키우는 것이 분명 보편적인 일이 아님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딸애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나갔던 저의 육아와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과정도 담겨있어요. 딸이 학교에 가고 결혼을 한 후까지 아버지의 시각에서 계속 그려나가 2년에 한권씩 책으로 묶어낼 겁니다.” 최정현이란 이름보다 분단을 상징하는 ‘반쪽이’란 필명으로 더 유명한 그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 ‘상흔’ ‘그늘이 오면’ 등의 에니메이션과 시사만화작업들로 89년 그림마당 민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만평집 「민주주의를 위해 포기하세요」를 낸 바 있다.

— 정혜옥 기자



## 공연예술 전반 아우른 비평적 에세이집 영화 및 방송매체에도 각별한 관심보여

— 「스크린·幕·많은 토슈즈」 낸 김태원씨

이 책 그 사람

우리나라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종종 '비평의不在'가 지목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다름 아닌 공연예술계 내부의 목소리란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작품 공연 자체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에 우선적인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비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법도 하다.

국내 몇 안되는 직업평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김태원씨(39)는 근래 들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1년여 사이에 속속 선보인 두권의 무용평론집과 가장 최근의 에세이집이 그 한 증거로, 그동안 이론서는 물론 비전문가를 위한 부담없는 읽을거리조차 부족했던 이 방면에서 그의 의욕적인 집필력만으로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올해까지 꼭 7년간에 걸친 그의 현장평론가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 책들은 앞의 두권이 그의 표현대로 '춤화'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미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면, 각각 영화·연극·무용을 상징하는 「스크린·幕·많은 토슈즈」(현대미술사)는 보다 폭넓은 장르를 아우른 본격적인 예술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평론가로서의 직업성을 벗어나서, 예술에 대해 별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이들을 위해 풍요로운 인간적 삶을 지향하는 공동의 땅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그는, 따라서 자신의 작업이 문화적 전문집단 뿐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향수층이 되어 할 일반인들의

인문교양에 일조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이왕에 해왔던 현대무용과 고전발레, 연극은 물론 영화와 T.V, 비디오의 영역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의 '대중문화론'이다. 일종의 엘리트예술로 볼 수 있는 무용뿐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영화와 방송문화에 대한 주목은 벌써부터 이뤄져야 했을 작업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들 영상문화의 현재적 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선도해나가는 것이 자신과 같은 비평가의 몫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국내 미개봉작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회자되는 베르톨루치의 「과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나 일련의 공산권 영화, 중국 무협영화 등이 갖는 의미를 전문가의 안목에서 '체대로' 해석해내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화현상 전반에 대한 전천후적 안목은 그동안의 그의 다양한 이력에서 싹터왔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에 열중했던 소극장운동, 이후 미국 유학시절 전공으로 택했던 영화학, 그리고 그 당시 접했던 수많은 공연작품들과 현장체험은 그를 특히 무용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결국 움직임과 이미지, 시간성을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세가지 장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는 글쓰기에 관한 한 “문체와 생각의 깊이를 갖는 에세이스트”이고자 한다. 직접 출판사를 운영할 정도로 출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글, 좋은책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다”는 한 진지한 문화주의자의 꿈에 다름 아니다.

— 정소연 기자



## 연극인이기도 한 한 철학자의 시평모음 30년만에 귀국한 고국의 정치 예술 다뤄

— 「이성과 미의 축제」 펴낸 강월도교수

이 책 그 사람

30여년을 미국에 머물다 지난 87년 귀국해 연극계와 강단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온 강월도교수(한성대, 57)

가 그동안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한 글들을 모아 내놓은 책 「이성과 미의 축제」(한신문화사)는 한 철학자의 다양한 관심의 폭과 그 깊이를 짐작케 한다.

그의 관심의 갈래는 이 책의 목차를 통해 쉽게 드러난다. '철학과 정치' '연극과 비평' 두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그는 국내 정치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자신의 철학적 소신을 특유의 논조로 서슴없이 표현하는데, 연극과 관련된 글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예를들어 '거친 연극과 효력 없는 비평'이란 제하의 글에서 강월도교수는 근래의 한국 연극이 창작극이나 변안극이나 할 것없이 '거칠다'고 말한다. 또 주례사에 가까운 비평 역시 장기공연이 드문 상태에서 “부고장과 다름 없다”고 질책하는 그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작품의 발굴과 고전을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제시하면서, 공연장의 적극적인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 책의 권말에는 도미 16년만인 지난 71년 첫 고국 나들이 때 조선일보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와 동양극장 구제를 주제로한 연극계 인사들과의 좌담회 등을 덧붙여 그의 연극에 관한 특별한 애정을 엿보게 한다.

인디어나대학과 콜롬비아대학을 거쳐 인디어나 주립대 조교수로 강단에 섰던 강월도교수는 안정된 일상을 버리고 뉴욕으로 건너가 연극에 빠져들었다.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극비용 때문에 복사가게, 인쇄소, 부동산업을 해 재산도 꽤나 마련했다. 그러나 노모의 간병차 귀국해 4년전 아예 눌러앉은 그의 녀석했던 주머니는 매년 한차례씩 올린 연극과 잡지발간으로 허전해지고 말았다.

“사실은 소설을 써볼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희곡으로 돌아섰죠. 귀국 후에 모두 3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어요. ‘어쩐지 돌연변이’ ‘뻔데기전’ ‘이승의 죄’가 그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는 등 체험적인 요소가 다분히 섞인 이 작품들을 통해 그는, “광대가 공놀이를 하듯 재밌는 현상을 무대에서 보여 준다”는 지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우리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 낯선, 그래서 순탄하게 막이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귀국 후 첫 공연작품이었던 ‘어쩐지 돌연변이’는 원제목이 ‘어쩐지 변태’였다. 이 책에서의 그의 표현을 빌자면, “한국 사람들의 후천성 결벽증에 타협하느라” 제목을 바꾸었다. 현장에서의 활동과 겸해 시도한 연극 영화 예술평론 등을 고루 다룬 「서울백보」의 발간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3호를 끝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이래 저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아직 공연시키지 못한 ‘인조인간’ ‘학이여 노래하라’ 같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틈나는대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미국에서 썼던 6편의 영문작품도 번역해야 하는데, 도대체 짬이 없어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강월도교수를 가리켜 한 연극인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자유인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 최태원 기자